

# 長髻 鄭氏(1565~1614) 墓의 출토복식

- 17세기 초 葬俗과 襲衣를 중심으로 -

이 은 주

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 The Excavated Costume from Mrs. Jung(1565~1614)'s Grave - Focused on the Funeral Custom and Shroud in the Early 17th Century -

Eun-Joo Lee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Andong National University  
(2003. 1. 7 투고)

### ABSTRACT

The custom and shroud for funeral rites of the early 17th Century based on the excavated costume from the grave of Mrs. Jung (1565 - 1614) are studied in this paper. The grave was located in the Pohang, Kyungbuk Province and was excavated in April 1999. The remains consist of one set of epitaphs, 33 pieces of costume, 7 pieces of cloths, and 14 pieces of funeral accessories.

From these remains, this study newly reveals : 1) a specific funeral custom for the upper class from the fact that her husband, Ja-Hun Ki, was in the position of Prime Minister for the Chosun government when she died, 2) a fact that women also wore a formal dress with round-shaped collar (Dalryoung) and a concubine could use rectangular tablets (Hyungbae) with peacock pattern according to her husband's rank, 3) a whole set of shroud used for women in the early 17th Century, and 4) specific construction methods for individual shroud.

Key Words: excavated costume(出土服飾), shroud(襲衣·壽衣), funeral custom(葬俗)

### I. 머리말

지난 1999년 4월 5일,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구간 내인 포항시 내단리 야산에서 오래 전부터

“奇大監墓”로 알려져 있던 單葬墓를 이장하던 중 여자 미라 한 구와 더불어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수습된 지석과 미라를 통해 기대감 본인의 묘가 아니라, 奇自獻(1562~1624, 광해군대의 영의정)

의 副室인 長鬢 鄭氏(1565~1614)의 묘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 묘에서 수습된 유물은 지식과 복식류, 직물류, 기타 염습구 등을 포함하여 61종의 70여 점에 이른다. 그 중 33점이 복식류로서, 단령형 上服과 대대를 비롯하여 장옷, 남녀 상의류, 치마, 바지, 도포, 중치막 등과 같은 복식들이다.

장기정씨 묘 출토유물을 통해 얻은, 가장 큰 복식사적 성과라고 하면 여성의 수의 일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확보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조선 전기의 명확한 여자 수의의 자료가 귀하기 때문에 17세기 초 수의의 품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최초로 여자의 단령착용 사례가 확보되었다는 점, 그리고 단령에 부착되어 있던 직금 공작흉배가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흉배 연구에 부족했던 비교적 이른 시기의 유물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보고서 간행 이후, 새롭게 확보된 문헌 자료와 유물 자료들을 참고하여 장기 정씨 묘 보고서<sup>1)</sup>의 내용을 보강하면서 검증받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중요한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17세기 초 상장례에서 보이는 복식 관련 풍속 외에 시신에 착용되었던 襲衣, 즉 수의의 유형별 조형성과 구성법을 다루고자 한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수의와 염의를 구분하지 않고 복식 유형별로 다루고 있어서 수의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 글을 통해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수의의 종류와 구성법에 대한 이해가 수월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한 고찰 결과는 전통 상장례 문화를 이해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앞으로의 장례문화를 개선함에 있어 바람직한 수의문화 발전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전통복식의 구성법에 대한 실증적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 II. 출토유물을 통해 본 17세기 초 葬俗

### 1. 피장자의 인적 상황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이장하게 된 장기 정씨의 묘는 경북 포항시 기계면 내단리 산 39-2 야산 능선에 위치한 회곽의 단장묘였다. 회곽의 두께가 60cm 정도나 되었으며 강도가 매우 강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해체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목관은 내관과 외관으로 구성된 이중관으로, 이장 당시 내관의 내부까지도 양호한 상태여서 미라와 미라를 감싸고 있던 유물들을 대부분 수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습된 장기 정씨의 시신은 문중의 논의 결과에 따라 이장 당일 火葬되었다.

1614년 당시 慶州府尹이었던 李安訥(1571~1637)이 5면에 걸쳐 쓴 지식 3매가 묘역에서 수습됨에 따라 피장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었다. 피장자는 광해군대에 영의정을 지낸 기자현의 부실이었던 장기 정씨로 밝혀졌고 아울러 명종 20년(1565)에 태어나 광해군 6년(1614)에 50세로 사망하였다고 하는 정확한 생몰 연대도 확인할 수 있었다.

『幸州奇氏大同譜』<sup>2)</sup>와 『한국민족문화대백과』<sup>3)</sup>에 의하면 장기 정씨의 남편인 기자현은 21세에 司馬試, 29세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1600년에는 대사헌이 되었다. 1604년 우의정, 1605년 좌의정, 1606년에는 판중추부사가 되었다. 1608년 광해군을 즉위시키는데 공헌하였으며 부실 장기 정씨가 사망하기 2달 전인 1614년 1월에는 영의정에 올랐다. 3년 후인 1617년에는 인목대비의 폐비론을 반대하여 유배되었다가 그 후 강릉에 은거하였으나 결국 1624년 李适의 난과 연루된 인물로 주목되어 처형되었다고 한다.

한편 지식의 기록 내용에 따르면 피장자 장기 정씨는 長鬢로 이주한 영일 출신의 인물로, 아버지는 工曹參議에 증직된 希宗이고 어머니는 金氏 姓의 漢陽人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자현의 부실이 된 묘주 정씨는 일찍부터 단정하고 온화, 후덕하였으

며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한다. 또한 제사지내고 의복 만드는 것이 모두 절도에 맞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임란 당시 적들에게 잡혀가서도 정절을 지키고 굽히지 않아서 모두 감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족보에 의하면 기자헌과 장기 정씨의 사이에 上護軍 벼슬을 지낸 順格이라는 아들이 있었다고 하나 그 아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 2. 장례 과정과 시기

이 묘에서 수습된 지석을 포함한 출토유물을 통해 당시 상장례와 관련된 몇 가지의 관행들을 확인할 수 있다. 지석의 내용 중에는 장기 정씨의 사망에서부터 葬地로의 이동 과정과 묘 조성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묘주 정씨의 남편 기자헌은 광해군 6년(1614) 1월에 영의정에 올랐는데<sup>4)</sup> 장기 정씨는 그로부터 2달 뒤인 3월 10일에 서울에서 사망하였다. 사망 후 한 달이 지난 4월 16일에 서울을 출발하여 보름 후인 5월 초하루에 경주에 이르러 묘소를 정하였다. 다시 그 후로부터 한 달 후인 6월 3일에 장례를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망 후 거의 3개월만에 장례가 마무리된 셈이다.

『國朝五禮儀』에 ‘大夫는 3개월만에 장사지내고 士는 달을 넘기어 장사지낸다’는 기록이 있다.<sup>5)</sup> 즉 4품 이상의 대부는 3월장을 지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묘주 정씨의 장례는 正室이 아닌 副室임에도 불구하고 大夫에 속하는 남편의 지위에 맞추어 치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3. 상장례용품들의 종류와 용도

장기 정씨가 사망할 당시 남편 기자헌이 영의정에 오른 직후이기 때문에 세도가 대단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부실임에도 불구하고 직급 흉배를 부착한 단령을 착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라고 하겠다. 출토된 남성 복식류는 다소 소박해 보이지만 고급 소재를 사용한 여성 복식은 당시 班家 상류층의 일반적인 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습이 되지 못한 유물들도 있지만 본 묘에서 최종적으로 수습된 유물은 지석을 포함하여 총 61종의 70여 점이다. 지석과 蓆, 銘旌, 衾, 絞, 幘, 握手, 습신, 머리카락 뭉치 등과 같은 치관제구 및 염습구가 14종(32%), 玄纁을 포함한 직물류가 7종(11%), 그리고 복식류는 33점(52%)인데 이 중에 여자 복식류가 27점, 남자 복식류가 6점이다.

이장 당시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내관과 외관 사이에는 명정과 직물류만이 확인된다. 따라서 복식류 33점은 습의와 대·소렴의, 그리고 보공품으로 사용되었던 것들로 추정된다. 특히 현장사진을 통해 4점이 보공품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습 후의 유물 상태와 시신의 흔적에 의해 습의로 확인될 수 있었던 복식류는 9점이다. 즉 공작흉배가 부착되어 있던 단령형 1:服 1점과 大帶, 그 안에 착용했던 화문단 장옷 1점, 화문단 단저고리 1점, 모시적삼 1점이 상의로 사용되었으며 화문단 치마 2점에 명주 개당고형 바지 1점이 하의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 수습되지 못한 소재 바지 1점이 있었음을 현장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장기 정씨의 습의로는 상의류 4점과 하의류 4점, 그리고 대대 1점 등, 총 9점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의 襲具로는 먹목과 악수(1쌍), 버선(1쌍)과 신발(1쌍)이 수습된 것이다.<sup>6)</sup> 나머지 복식류는 대·소렴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해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 4. 상장례용 복식 사용과 관련된 葬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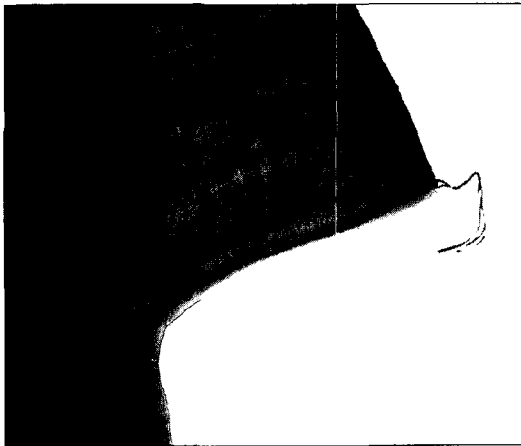
### 1) 新衣와 遺衣의 사용

수습된 33점의 복식류에는 장기 정씨 본인의 옷은 물론, 타인의 ‘襚禮之衣’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본인의 평소 입었던 遺衣는 물론, 새로 제작되어 상례에 사용된 새 옷[新衣]도 있다.

새 옷인 경우에는 옷 모서리 끝부분에 실꼬리가 달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襲用 단저고리 외에도 殮衣로 추정되는 복식(단저고리 1점, 저고리 1점, 장저고리 2점) 4점 등, 모두 5점에서 실꼬리(그림 1)가 확인되었다.

17세기의 한 기록<sup>7)</sup>에는 재산 정도에 따라 차이

는 있지만 당시 사람이 죽으면 새 옷을 관속에 넣어주는 관습이 있다고 지적되어 있다. 다른 묘에서도 실꼬리가 달린 옷들이 수습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볼 때 염습의 등에 신의를 사용하는 관행은 전통상례에서 보편적인 양상이었다고 하겠다.



<그림 1> 안깃 끝의 실꼬리(JJ 07)

## 2) 襚禮之衣의 사용

본 묘의 복식 유물 중에서는 피장자와 성별이 다른, 즉 남자 복식이 모두 6점이 확인되므로 수레지의, 즉 襚衣<sup>8)</sup>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襚衣, 즉 '수레지의'는 亡子의 친인척이 보내는 옷으로 襲衣로는 사용하지 않고 殮衣에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禮記』 『喪大記』<sup>9)</sup>에 襚禮에 대한 기록이 확인된다. 『朱子家禮』<sup>10)</sup>에는 과거에 襚禮가 행해졌으나 宋代 당시에는 염습제도가 간략해지면서 襚禮가 거의 잊혀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래 전에는 친자, 형제, 봉우, 군으로부터 제물로서 의 옷을 받는 다양한 유형의 襚禮 관습이 있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한편 『儀禮注疏』에는 '親者襚'는 대공 이상이 하는 것이고 '庶兄弟襚'는 소공, 시마의 친척들이 하는 것<sup>11)</sup>이며 이렇게 賻儀로 받은 襚衣은 대·소렴에만 사용하였던 것이다.<sup>12)</sup>

조선 초 『國朝五禮儀』의 사대부가 상례 내용에 수레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sup>13)</sup> 그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 수레가 실제적인 관행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기록과 출토유물 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16세기 農學者였던 朴承(1520~1577)은 '남편의 관속에 아내의 의복 일습을 넣어 주는 풍속은 예에 어긋나는 것이니 따르지 말라'<sup>14)</sup>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배우자의 옷을 부장하는 수레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의 『四禮便覽』<sup>15)</sup>에도 친우의 襚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 친우의 옷 등을 관 속에 넣는 풍습은 조선 후기까지에도 지켜졌던 관행으로 볼 수 있다. 1798년의 실제 장례 내용을 기록한 『泣血錄』<sup>16)</sup>에는 수레지의로 사용된 자부와 손녀의 옷을 '加入衣'로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이용태의 묘에서는 형의 글이 쓰인 부채를 포함하여 아들의 옷으로 추정되는 상의, 부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점의 여성복이 확인된 바 있다.<sup>17)</sup> 또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17세기 말 洪禹協 묘에서도 아들의 옷으로 추정되는 襚衣가 확인되었으며<sup>18)</sup> 그와는 반대로 어린 아이의 묘에서 중치막과 사복 바지, 장옷 등, 부모의 옷으로 추정되는 성인 남녀의 옷이 수습된 경우도 있다.<sup>19)</sup> 그리고 19세기 말 李沈應(1818~1879)의 묘에서도 여자 삼회 장저고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sup>2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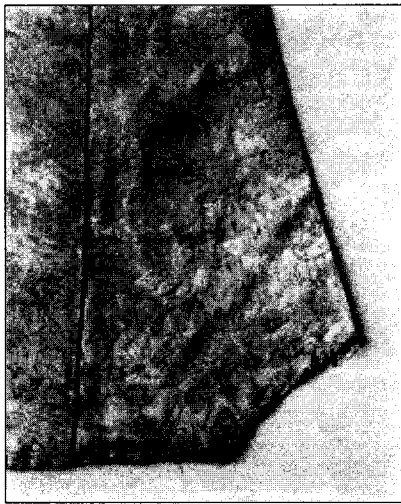
본 묘에서 수습된 여자 복식류 중에서도 장기 정씨 이외의 다른 성인용 여자 복식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묘주 본인의 옷과 구별해 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함께 수습된 남자 저고리와 중치막, 도포 등 남자 복식 6점은 여자의 것과 어렵지 않게 구분되므로 남편이나 아들, 또는 손자의 옷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정씨의 상장례 과정 중에 수레지의가 사용되는 관행이 그대로 행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옷이나 옷감의 끝자락 절단

실꼬리를 달아놓은 新衣 사용의 관행과 아울러 지금까지 다른 묘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상장례 관행이 확인된다. 즉 옷이나 옷감의 귀퉁이를 가로, 세로 10cm 정도의 대각선 방향으로 절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다른 묘에서 고름을 절단한 것으로 추정된 경우가 있었지만 옷자락이나 옷감을 자른 사례가 확인된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본 묘의

독특한 상장례 사례로 주목되는데, 이처럼 귀퉁이가 절단된 유물은 대소렴구와 보공품에서 확인되는 바, 옷감 6점을 포함하여 상의류 3점과 치마 1점 등 모두 10점이다.

끝 부분이 절단된 상의류(그림 2)는 모두 여성용이었으며 걸선이 잘린 경우가 1건, 안선이 잘린 경우가 2건이다. 치마의 경우는 오른쪽 자락 끝을 잘랐는데 왼꼬리 치마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걸자락을 자른 경우라고 하겠다. 옷감류의 끝 부분에 유사한 형식으로 잘린 것이 확인된다.



<그림 2> 안선 끝의 절단 사례

상례 물품의 조각을 잘랐다고 하는 기록은 『大東奇聞』에서 확인된다. 임오년(1762) 莊獻世子の 초상 당시 호조판서와 예조판서를 겸했던 鄭弘澤

이 초종법절을 풍후하게 하고 옷과 이불로부터 세세한 물건에 이르기까지 한 조각씩 베어서 께 속에 넣어 보관하였다는 기록인데<sup>21)</sup> 이는 후일의 정치적 변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 묘의 경우와는 다른 상황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특별한 이유에서 옷감 등을 자른 경우가 있었음을 확인한 셈이다. 따라서 옷자락 절단의 이유나 절단할 복식의 선정, 또 그 절단 조각의 처리 방법 등, 특수한 장속과 관련된 의문점은 앞으로의 지속적인 과제로 남겨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 Ⅲ. 습의의 종류와 조형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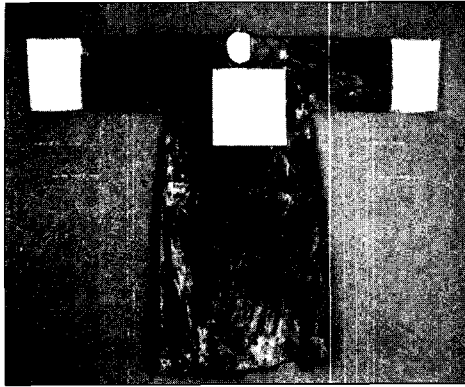
본 묘의 출토복식 중 당시 습의에 사용되었던 복식의 종류 별로 조형성과 구성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보고된 16세기 중엽 朴文氏의 습의 일습 외에는 조선시대 여자용 습의의 일습 자료가 발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장기 정씨의 습의 일습은 학술적인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습의로 사용된 복식의 종류는 단령형 上服 1점, 장옷 1점, 단저고리 1점, 적삼 1점으로 상의류가 4점이고 솜치마 1점, 겹치마 1점, 개당고형 솜바지 1점, 그리고 사진으로 확인된 합당고형 추정의 소색바지 1점까지 하의류가 4점이고 부속품으로 상복용 大帶가 1점이 포함된다(표 1). 그 외에 기타 습구로 사용되었던 습용 신인 履 1쌍, 버선 1쌍, 얼굴 덮개인 幘日 1점, 손싸개인 악수 1쌍이 있다(표 2).

<표 1> 장기 정씨의 습의 종류

번호	유물명칭/번호	구성유형	소재(겹/안)	색상	상태	비 고
1	단령형 上服	홀	화문단	아청	완형	길이 157cm, 화장 105cm, 뒷폭 72cm
2	大帶	겹(한지)	화문단(한지삼)	-	완형	길이 506cm, 나비 8cm, 금선단 장식
3	장옷	겹(한지)	화문단/명주(한지삼)	-	완형	길이 125cm, 화장 91cm, 뒷폭 64cm
4	短赤古里	겹	화문단/명주	-	완형	길이 57cm, 화장 75cm, 뒷폭 60cm
5	赤衫	홀	모시	소색	완형	길이 57cm, 화장 73cm, 뒷폭 62cm
6	솜치마	솜	화문단/명주	-	완형	길이 85cm, 폭 405cm, 접음단 장식
7	겹치마	겹	화문단/명주	-	완형	길이 85cm, 폭 392cm
8	개당고형 바지	솜누비	명주/명주	-	완과	길이 89cm, 허리90△cm, 부리56△cm
9	합당고형 바지(추정)	홀(추정)	-	소색	소각	길이 -cm, 허리 -cm, 부리 -cm

### 1. 단령형 上服



<그림 3> 아청색 화문단 홀 단령형 上服  
(뒷길이 157cm, 화장 105cm, 뒷폭 72cm)



<그림 4> 앞길을 젖힌 상태의 단령형 상복

#### 1) 여성의 단령 착용 문제

아청색 화문단 단령형 상복(그림 3)은 장기 정씨의 묘에서 출토된 복식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복식이다. 이 옷은 장기 정씨의 습용 上服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新衣로 추정된다.

우선 홀으로 제작된 이 옷은 157cm나 되는 길이이므로 실제 착용되었던 평상복이 아니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장기 정씨를 싸고 있던 삼베 單衾에 남아 있는 시신의 흔적으로 보아 장기 정씨의 신장은 160cm 정도이다. 평상시 착용하였던 것이라면 그 길이가 길다고 해도 130cm 내외이어야 하지만 그 보다 무려 30cm나 길다. 또한 다른 복식류와 비교되는 거친 바느질을 보아도 평상시 사용되었던

옷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최근 한 연구<sup>22)</sup>에서 조선시대에 여성도 단령을 착용하였다는 견해가 새롭게 제기된 바 있다. 대부분 여자의 단령은 시신에 착용되었던 수의로 확인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16세기 여자 묘에서 습의로 사용되었던 단령형 옷이 출토된 사례가 있다.<sup>23)</sup> 이미 국내에서는 경기도박물관(미공개),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미공개) 등, 그리고 근래 발표된 미라 파평 윤씨(물년 1566년, 고려대학교 박물관)도 흉배 달린 아청색 단령을 수의로 착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생시에 여성들이 단령을 착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적지 않다. 당시 여성들이 단령을 착용하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정씨의 경우, 副室이라는 신분으로 과연 단령을 입었겠느냐 하는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그러므로 본 묘의 이 단령은 수의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 明代의 『大明會典(1587)』<sup>24)</sup>에는 단령형의 동일한 옷으로 추정되는 團衫, 團領衫, 圓領衫 등의 다양한 명칭이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明代의 여자 초상화에서 황색<sup>25)</sup>이나 홍색<sup>26)</sup> 단령을 착용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된다.

조선시대의 기록에도 여성들이 단령을 착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보이는데 團領衫, 圓領衫, 圓領, 圓衫 등의 명칭이 확인된다. 특히 조선 후기의 '원삼'이 단령 제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단령(원령)'과 '원삼'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태종 3년(1403)에 명 使臣 황엄 등이 가지고 온 왕비의 물품 중에 大紅 大衫과 福靑色 夾 團領이 포함되어 있다. 남자 단령이 원령으로도 불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의 단령도 원령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양성지(1415~1482)의 『訥齋集』에는 양반 부녀자들에 이르기까지 '圓衫'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입고 흉배를 붙인 채 大路를 다니면서 조금도 괴이한 줄을 모른다<sup>27)</sup>고 한 내용이 보인다. 여성의 원삼 착용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동시에, 당시 여성들이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흉배를 단 옷을 착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곧 본

묘의 단령형 상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燕山君代(1505)에 사라능단 값이 올라 가난한 朝士들이 여자 옷으로 단령을 만드니 朝賀, 朝參 때 반 이상이 여자 '圓衫'을 입었다고<sup>28)</sup>고 한 것은 남자 단령(원령)과 여자 원삼의 형태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 임난 전 조선의 여성 단령과 원령, 그리고 원삼이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조선 전기에는 후기의 원삼과는 다른, 단령 형태의 원삼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조대(1460년)에 세자빈 納徵禮에 사용된 복식 중에 길에서 입는 여자 옷으로, 帶를 띠지 않는 큼직한 大紅 '露衣'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남자 단령과 제도가 유사하다<sup>29)</sup>고 한다. 그렇다면 단령(원령)과 원삼, 그리고 노의와의 관계도 추후 검토 될 필요성이 있다.

## 2) 단령의 구성법

본 묘의 단령형 上服은 앞·뒤길은 어깨솔기 없이 한 장으로 이어서 재단을 하였으며 좌우 길을 등솔기에서 연결하였다. 廣幅(66cm)의 花紋段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길 한 폭에서 길 부분의 나비가 충분히 마련되고 소매와 무의 부족한 부분에 필요한 조각을 연결하여 완성시켰다.

뒷길이는 157cm(앞길이는 160cm)이고 품도 72cm로서 비교적 넓은 편이다. 그리고 단령 자체의 화장 길이는 79cm이고 소매 끝에 26cm 길이의 한삼이 달려 있다. 그리고 진동과 수구의 나비는 각각 38, 38.5cm이므로 筒袖라고 할 수 있다.

겉섶과 안섶은 요즈음의 올 방향과 동일하게 재단하여 연결하였으나 길과 연결된 부분의 시접 방향은 요즈음과 반대로 되어 있다. 즉 겉섶의 시접은 길 쪽으로, 안섶은 섶 쪽으로 넘겼다. 섶단은 2cm 나비의 제물단으로 먼저 접어 정리하고 나중에 밑단(나비 3cm)을 접어 올리되, 끝 귀퉁이는 삼각으로 접어 처리하였다. 반면에 안섶 쪽 밑단 귀퉁이는 삼각형으로 접지 않고 그대로 바느질하였으니 밑단 모서리를 좌우가 동일하지 않은 비대칭형으로 처리한 셈이다.

바이어스로 재단된 깃(3.5×116cm, 겉깃 52cm, 안

깃 44cm)의 목선 가장자리에는 심을 넣고 0.3cm 들여다 상침 장식을 하였다. 겉깃 끝에 달린 매듭단추가 소실되어 밑동만이 남아 있고 金線段의 투박한 압단추(0.7×4.5cm)만 깃의 오른쪽 어깨에서 확인된다.

안고름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겉고름은 명주로 만든 직접부착형 겹고름인 것으로 확인된다. 겉섶 가장자리 上部에서 45.5cm 내려온 지점에 고름 밑동(나비 3cm)이 남아 있다. 오른쪽 길의 고름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겉섶 쪽 고름의 위치로 미루어볼 때 겨드랑 부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남자용 단령과 구별되는 소매와 무의 구성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소매 구성법

단령의 소매 끝에 덧단을 대어 겉으로 15cm 정도 넓게 접어 걷은 통수형 소매이다. 그 끝은 2.5cm나 되는 넓은 시접을 넣어 원래의 소매에 성글게 고정시켰다. 16세기 이후 17세기 초까지의 남자 단령의 소매도 거의 통수이기는 하지만 수구 쪽에서 약간 좁아지는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지금까지 확인된 여성 단령의 소매는 거의 직배래형의 통수형이다. 이런 점이 남녀 단령에서 보이는 조형적인 차이일 수도 있다. 그리고 16세기 말의 것으로 추정되는 연안 김씨 단령<sup>30)</sup>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소매에 덧단을 대는 방식도 배래의 모양과 더불어 남녀의 단령을 구분하는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소색 화문단의 한삼은 소매 끝 안쪽으로 6cm 들여다 거친 바느질로 달았다. 길 쪽에서 연장된 소매 부분의 배래 시접은 안쪽에서 통솔로 마무리하였고 다시 덧댄 소매 부분은 끝을 접어 걸었을 때 솔기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거죽에서 통솔로 바느질하였으며 한삼 역시 배래 부분은 시접이 겉에서 보이지 않도록 안쪽에서 통솔 처리하였다.

### 2) 무 형태와 구성법

1614년 장기 정씨가 사망할 당시, 남자 단령에는 뾰족하게 삼각형으로 돌출되어 등 뒤로 넘겨진 '뒤젓힘 대주름형'의 무가 달려 있다.<sup>31)</sup> 그러한 무의 모습은 17세기 초 功臣 圖像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단령의 무는 남자의 것과는 달리, 옆 트임 안으로 접혀 들어간 다중 안주름형(나비 10.5cm)이다. 16세기 말엽의 것으로 추정되는 청주 한씨(문정왕후 2녀 의혜공주의 손녀)의 단령에는 장기 정씨의 단령과 유사한 다중 안주름이 잡혀있으나 동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연안 김씨 단령과 전주 이씨 일가 묘의 여자 단령에는 앞·뒤길의 겹으로 고정시킨 다중 겹주름 무가 확인되기도 하였다.<sup>32)</sup>

『燕山君日記』에 가난한 朝士들이 여자 옷으로 단령을 만드니 朝賀, 朝參 때 반 이상이 여자 원삼을 입었다고<sup>33)</sup>고 한 것은 남녀의 단령이 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특히 무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여성의 단령에서 보이는 다중 주름은 남성복의 경우에는 오히려 고려 말 유물이나 초상화 등에서 확인된다.<sup>34)</sup> 초기에는 남자의 무 제도와 여자의 무 제도가 비슷했지만 여자 단령의 무 제도는 변화없이 과거의 형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한 반면에, 남자 단령에서는 무 제도가 새로운 형태로 변화해 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무의 형태에서 여성 복식의 보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무의 시작점은 거드랑점과 무 시작점 사이의 간격이 2cm인데 이 부분은 소매 배래의 솔기와 무의 윗부분을 정리하는 시점으로 사용되었다. 무의 가장자리는 2cm 나비의 제물단으로 정리되었으며 무의 윗부분에는 앞·뒤길이 연결된 옆선 상에 크기가 약간 다른 직사각형 바대(가로 4cm, 세로 6.5cm)가 안쪽으로 거칠게 바느질되어 있다.

### 3) 공작 흉배

단령에는 직금 공작흉배가 달려 있는데 0.1cm의 片金絲를 사용한 금선단으로, 도안(그림 5)은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유연한 곡선이 아름다움을 더한다. 앞에 사용한 흉배 도안과 뒤의 도안은 대칭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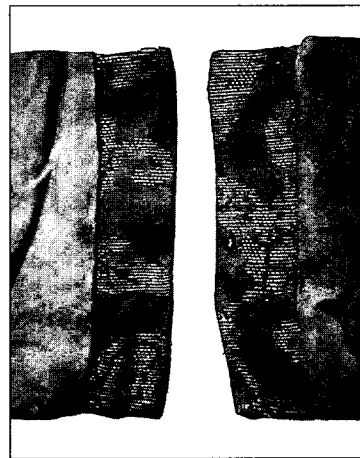
공작흉배는 단종 2년(1454)에 문관 1품용으로 제정된 것으로, 장기 정씨의 단령에 부착되어 있던 직금 공작흉배는 영의정이었던 남편 기자현의 품

계에 맞추어 사용된 것이다. 正妻가 아닌 副室의 경우에도 이러한 흉배가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이 주목되는데 이 역시 단령 착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례에서나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동시대의 남자 흉배 도안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6세기 말 鄭應斗(1508~1572) 묘의 공작흉배에는 圓形에 가까운 소형 골타운형의 구름으로 직금되었으나 그와는 달리, 본 묘의 흉배나 연안 김씨 묘의 단령에 부착되어 있는 공작흉배는 구름 표현 양식에서 유사성이 확인된다.<sup>35)</sup> 16~17세기 초상화의 흉배에서도 길게 늘인 구름 양식이 동일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뒷길용 흉배 도안(38×37cm)



<그림 6> 대대 양끝의 金線段 장식(나비 1.5cm)



흉배는 사방 1cm 정도의 시접을 두고 재단되어 시접을 접어 정리한 후 소재 綿絲로 1cm 이상의 큰 땀 간격으로 단령에 고정시켰다. 앞길에는 깃 바로 밑에 달려 있고 뒷길에는 뒷중심선에서 8cm 내려 온 위치에 달려 있다.

## 2. 大帶

본 묘에서 수습된 鳳凰花紋段 대대는 그 길이가 대단히 길고(8×508cm) 한지를 넣어 뽀뽀한 느낌을 준다. 단령형 上服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청색의 移染 흔적과 더불어 붉은 기운이 남아 있다. 그리고 대대 양끝에 1.5cm 나비로 좁게 부착된 金線段 장식(그림 6)이 있다.

경기도박물관 소장의 임란 전 연안 이씨의 단령에도 이처럼 금선단 장식이 있는 대대가 사용되었으며 金獲(1572~1653)의 부인 동래 정씨의 묘에서 수습된 원삼용 봉황문단 대대에도 한쪽 끝에 직금단 장식이 있다<sup>36)</sup>고 하니 대대의 끝 부분에 금선단을 장식하는 것은 당시 여성용 대대 양식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國朝五禮儀』사대부 상례에 여성용 대대로 靑紬를 사용한다고 되어있으나 실록에는 ‘紅色金線段大帶’ 기록<sup>37)</sup>도 보이는 바, 본 묘에서 수습된 대대와 같은 금선 장식의 대대가 아닐까 한다.

## 3. 장옷(長衣)

『상례언해』<sup>38)</sup>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장옷(長襖子, 당옷)은 여자 喪事에서 ‘원삼’이나 ‘蒙頭衣’ 등과 더불어 ‘上服’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옷이다. 그러나 본 묘에서는 장옷(그림 7)이 단령형 상복의 받침옷으로 사용되었다. 화문단 겹감에 명주 안감을 사용하였으며 그 사이에 한지를 심으로 넣은 겹옷인데 훼손이 심한 편이다. 현재의 색상은 붉은 빛을 띠는 짙은 갈색이다.

뒷길이는 125cm이고 화장은 91cm, 뒷폭은 64cm, 뒷길쪽 밑단의 전체 나비는 114cm이다. 옷은 전체적으로 풍성한 느낌을 준다. 앞·뒤길을 이어서 재단하여 좌우 길을 등술기(흠질, 右向)에서

연결하였다. 소매 끝부분에는 겹감보다 좋지 않은 2종류의 명주가 사용되었으며 소매 끝을 접어서 착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소매 형태는 진동(34cm)에서 수구(32cm) 쪽으로 약간 좁아지는 통수이며 겨드랑에는 옆선에 연결된 대형 사다리꼴 무 상단에 ‘사각접음무(5×5cm)’가 달려있다. 그리고 진동선은 물론, 소매 각 쪽의 이음선은 시접을 모두 길 쪽으로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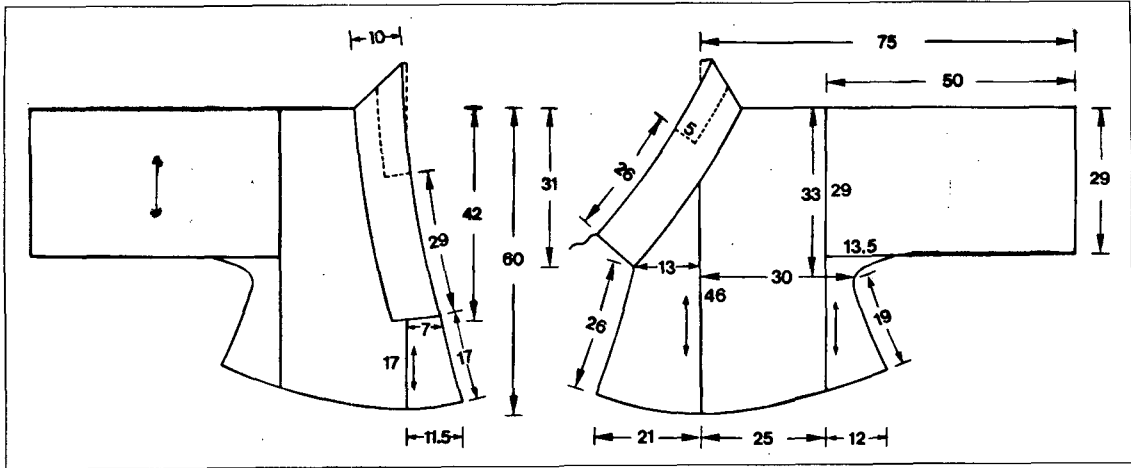
<그림 7> 화문단 겹 장옷  
(뒷길이 125cm, 화장 91cm, 뒷폭 64cm)

좌우 앞길에는 이중선이 달려있는데 그 크기나 구조가 좌우대칭 정도로 거의 같다. 좌우의 섶은 4조각 모두 섶단 가장자리 쪽에 올방향을 두도록 재단되었으며 시접은 각각의 길 쪽을 향하도록 하였다. 고름은 안팎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깃은 전형적인 장옷 목관깃(11×106.5cm)으로 좌우 모두 길에 들여 달려있으며 겹깃(44cm)이 안깃(42.5cm)보다 약간 길고 깃 양끝의 가장자리에 장식된 상침의 위치로 보아 동정이 달려있던 옷으로 추정되는데 동정 위치에서 깃고대를 중심으로 만든 창구멍(길이 49cm)이 확인된다. 옷의 상태로 보아 평상시 착용하였던 옷으로 추정된다.

겹옷이기 때문에 주로 흠질로 바느질하였지만 섬세한 바느질은 아니다. 겹감과 안감 각각에 깃까지 연결한 후 거죽이 맞닿도록 포갠 다음 수구 부분을 돌려 박고 깃고대 주변의 창구멍만 남긴 후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박은 후 트인 창구멍으로 뒤집어서 완성시켰다.

4. 短赤古里



<그림 8> 화문단 겹 단저고리 실측도  
(뒷길이 57cm, 화장 75cm, 뒷폭 60cm)

현재 밝은 갈색을 띠고 있는 습용 겹 단저고리(그림 8)는 앞에서 살펴 본 장옷 안에서 수습되었는데 적삼 위에 사용된 두 번 째의 옷이기도 하다. 습용 치마와 동일한 소재인 모란문단 겹감에 명주 안감을 사용하였다. 겹깃 모서리에서 실꼬리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새로 만든 옷[新衣]임을 알 수 있다.

뒷길이는 59cm이고 화장은 75cm, 뒷폭은 60cm, 밑단 나비는 74cm이다. 소매는 통수로서 진동과 수구 나비가 모두 29cm이며 겨드랑 아래에 ‘ㄱ자형 무’가 달렸다. 깃은 목판깃(10×99cm)인데 겹깃(길이 38.5cm)은 내어 달린 형이지만 안깃(42.5cm)은 안섷으로 완전히 들어 달린 형이다. 현재 동정은 남아 있지 않지만 흔적을 통해 크기(5×46cm)와 위치(겹깃 끝에서 26cm)를 추정할 수 있다. 반면에 고름은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바느질은 주로 홉질로 이루어졌으며 바느질 순서는 장옷과 대략 같다. 어깨솔기 없이 앞·뒤길을 이어서 재단하였으며 등솔기는 오른쪽을 향하였다. 겹섷 솔기는 섷 쪽을 향하였으나 안섷 솔기는 길 쪽을 향하여 요즈음 바느질법과 같았다. 겹섷, 안섷 모두 중심선 쪽에 끈은 울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안섷은 깃을 들어 달았기 때문에 다른 상의류의 안

섷보다 작은 편이다. 진동 솔기는 가름솔로 처리되었는데 길 쪽으로 진동솔기를 보내는 다른 유물과는 다른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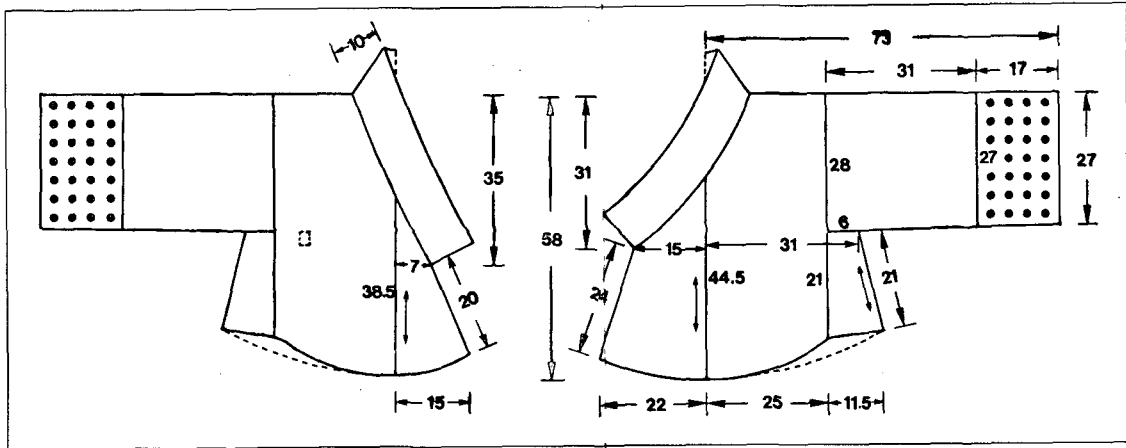
5. 赤衫

소색으로 추정되는 모시 홉적삼(그림 9)은 단저고리 안에서 수습되었는데 시신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아있던 속옷이므로 오염이 가장 심한 상태였다.

길이는 위에 겹쳐져 있던 단저고리와 같은 57cm이고 화장은 팔목에 이르는 정도의 73cm인데 끝에는 길보다 고운 모시폭(나비 17cm)이 이어져 있다. 진동은 상의류 중 가장 좁은 28cm이고 수구는 27cm이다. 뒷폭은 단저고리보다 약간 넓은 62cm이고 밑단 나비는 73cm이다.

깃은 목판깃(38×115cm)으로, 단저고리의 목판깃과는 달리, 겹깃(길이 38cm)과 안깃(길이 39cm)이 모두 내어 달렸으며 동정은 없는 상태이다. 고름은 겹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겹깃 끝단의 중간 부위에 고름(나비 2cm)을 끼워 박은 흔적이 확인된다. 그리고 맞은 편 고름을 달기 위한 우측 길 안쪽에 직사각형의 고름바대(2×2.5cm)를

대었다. 걸고름은 확인되었으나 안고름은 확인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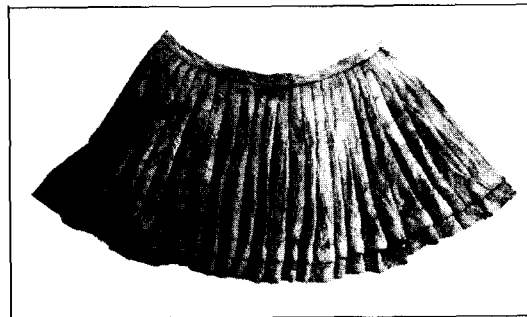
<그림 9> 모시 홀 적삼  
(뒷길이 57cm, 화장 73cm, 뒷폭 62cm)

어깨솔기 없이 앞·뒷길을 이어서 재단하였으며  
쌈술의 등솔기는 우측을 향하였다. 어깨 부위에는  
안쪽으로는 걸감과 같은 소재의 '凹字形' 어깨바대  
(나비 4cm, 길이 50cm)를 대었다.

바느질은 쌈술과 말아감침, 통술 방법을 사용하  
였는데 길과 겨드랑 무 등의 가장자리 선단과 도련  
선을 먼저 말아 감침 후 세로 솔기를 박았다. 세로  
솔기인 섯선이나 진동선은 쌈술로 처리하였으며  
수구는 말아감침으로 정리하였다. 도련선 먼저 말  
아 감치고 세로 솔기를 바느질하는 방법은 일선 문  
씨의 홀옷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섯은 모두 중심선 쪽에 식서 방향을 두었으며  
도련선을 말아감침 후 나중에 쌈술로 섯선 바느질  
을 하되 걸섯, 안섯의 솔기는 모두 길 쪽을 향하게  
하였다. 옆선과 배래솔기는 통술로 처리하여 몸판  
을 완성시킨 후 깃을 달았으며 깃은 한 장을 접어  
서 만들되, 완성된 걸깃 쪽 나비에 걸고름을 끼워  
박은 상태로 깃을 완성시킨 후 몸판 걸감에 달고  
안에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였다.

## 6. 치마(2점)



<그림 10> 접음단 장식의 화문단 솜치마  
(길이 85cm, 폭 405cm, 접음단 나비 7cm)

본 표에서 치마는 모두 7점이 수습되었지만 습  
용으로 확인된 치마는 2점이다. 즉 蓮花蔓草寶文  
솜치마(그림 10)와 牡丹紋段 겹치마이다. 두 점 모  
두 끈만 소실되었을 뿐 치마 형태를 완전하게 유지  
하고 있다.

접음단 장식의 有無만을 제외하고는 솜치마와  
겹치마, 두 점 모두 조형적인 특징이 거의 같다. 길  
이(85, 86cm)나 폭(392, 405cm), 치마폭 수(7폭), 허  
리말기의 크기(7×101, 7×100cm), 주름의 개수(23

24개)와 간격, 주름 나비, 안쪽 밑단에 화문단으로 별포단(나비 2cm) 장식도 같다. 치마자락에 남은 얼룩과 주름 간격이나 좌우 자락의 길이 등과 같은 조형적인 특징으로 보아 착장방법도 원꼬리 여덴으로 동일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큰 차이점은 안에 착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겹치마에는 밑단 쪽에 접음단 장식이 없는 것에 반해, 겉에 착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솜치마에는 접음단 장식(완성 상태의 나비 7.5cm)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안에 입은 겹치마는 단저고리와 동일한 소재라는 점도 주목된다. 단저고리와 함께 만들어진 새 옷일 가능성이 있다.

본 묘에서 수습된 치마 길이는 땅에 끌리는 長裙(127~128cm)과 발목이나 바닥에 닿을 정도의 길이(말기 제외한 길이 85~88cm)로 보통 길이의 치마로 구분되는데 솜용 치마 2점은 모두 완성 상태의 길이가 85cm 정도의 보통 치마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접음단 장식이 있는 치마는 100cm 정도의 긴 치마로 완성한 후 밑단 가까이(16cm)에서 가로로 주름(15cm 분량)을 접어 다소 영성한 흠질로 박아서 85cm 정도의 길이로 만든 것이다. 이러한 주름 장식의 바느질법은 연안 이씨(1584~1655)의 蓮花蔓草紋段 겹치마에서도 볼 수 있다.<sup>3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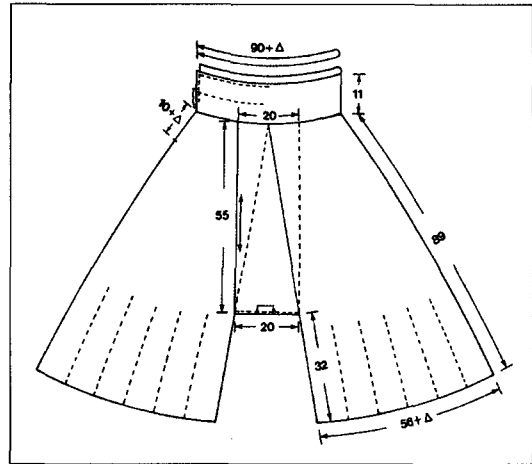
치마는 안감과 겉감의 폭을 각각 이어서 안감 밑단에 별포단 선장식을 두른 후 안팎을 맞대어 가장자리를 박아 뒤집는다. 윗 부분에 주름을 잡은 후 말기를 달아 완성시켰다. 끈은 아마도 말기 완성 후에 달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 7. 개당고형 바지

장기 정씨 묘에서는 명주 솜누비 개당고형 바지가 2점 수거되었는데 시신에 착용되어 있던 바지는 수습 과정에서 심하게 파손되었다. 안팎을 명주로 하되, 솜을 두툼하게 두어 11cm 간격으로 바지통을 누볐으며 허리에는 중간에 길게 한 줄만 누볐다.

치수는 정확하지 않으나 구조 파악을 위해 실측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1). 대략 바지 길이는 89cm이고 허리말기의 나비는 11cm, 길이는 90cm 정도, 그리고 바지 부리의 나비는 56cm 가량

이다.



<그림 11> 명주 솜누비 개당고형 바지 실측도  
(허리 11×90+Δcm, 바지길이 89cm, 부리 56+Δcm)

좌우 가랑이를 분리하여 만든 개당고형으로 가랑이는 각각 세 폭 반을 이어 상하의 나비가 같은 원통형으로 만들었다. 사타구니에 사다리꼴 대형무(길이 55cm, 나비 上 10/下 20cm)를 달았으며 10cm 이상의 세로형 옆트임을 두어 착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옆트임을 허리 오른쪽으로 둔다고 가정할 때 왼쪽 가랑이가 오른쪽 가랑이의 위로 깊숙히 20cm 정도 겹쳐져서 허리말기에 고정되었다. 주름의 개수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주름 간격은 대략 4~10cm, 주름 분량은 6~10cm인 것으로 파악된다.

중간에 1줄만 누벼진 허리말기에는 말기 상단에 6cm 내려온 위치에 달려 있던 5cm 나비의 명주 겹 끈의 밑동만 확인된다.

## 8. 합당고형 바지(추정)

장기 정씨가 가장 안에 입고 있던 소재의 바지 한 점이 현장 사진자료에서 확인되었다. 후손들의 제보에 의하면 파손된 개당고형 바지 안에 입혀졌던 합당고형 바지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신을 화장시킬 때 시신과 함께 소각되었다.

### 9. 기타 습구

습의를 제외하고 습구로 사용되었던 유물은 네 종류이다. 습신 履와 버선 1결레, 얼굴을 덮었던 幘目, 손을 감쌌던 幄手 등이다(표 2). 充耳도 사용되었을 것이나 수습이 안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외에 女帽 등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확인이 불가능했다.

는데 걸감 쪽에다 직접부착형으로 고정시켰다.

그리고 일선 문씨나 이용태의 악수처럼 몸체가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 정씨 묘의 악수는 『가례』에 제시된 형태와 같이 樓中<sup>40)</sup>, 즉 중간이 오목하게 들어간 실패형으로 만들어졌다. 16세기 중후기 정도의 이연웅 자부의 묘<sup>41)</sup>와 李頌明(1513~1583)의 묘<sup>42)</sup>에서 수습된 떡목과 같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장기 정씨의 습구 종류

번호	유물명칭/번호	구성유형	소재(겉/안)	색상	상태	비 고
1	履 1	겉	무문단/한지	아청	완형	24×9.5cm
	이 2	겉	무문단/한지	아청	완형	24×9.5cm
2	幘目	숨	무문단/초	아청	완형	26×26cm, 끈 1 소실
3	幄手 1	숨	무문단/초	아청	완형	26×11cm
	악수 2	숨	무문단/초	아청	완형	26×11cm, 끈 1 소실
4	버선 1	겉	면포/삼베	소색	완형	버선목 안단: 면포 4cm 나비
	버선 2	겉	면포/삼베	소색	완형	버선목 안단: 면포 4cm 나비

#### 1) 履와 버선

습용 신이었던 것임을 현장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무문단 履(그림 14) 한 쌍이 수습되었는데 그 길이는 24cm이고 바닥의 나비는 9.5cm이다. 겉감에는 아청색 무문단을 사용하였으며 안과 바닥에는 한지를 사용하였다. 재료와 신발 바닥과 몸체를 영성하게 연결한 제작 방법 등으로 미루어보아 사례를 위해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습용으로 추정되는 면포 겉버선도 한 쌍이 수습되었다. 발길이가 25cm, 높이가 30cm인 이 버선의 버선목 안쪽 부분에는 걸감인 면포를 4cm 접어 넘겼으며 안쪽 나머지 부분에는 거친 삼베를 사용하였다.

#### 2) 幘目과 幄手

얼굴을 덮었던 떡목 1점과 손을 썼던 악수 1쌍도 수거되었다(그림 15). 떡목과 악수 모두 『가례』에 제시된 형태와 거의 유사하다. 떡목과 악수 모두 아청색 무문단 겉감에 안감으로 緞(색상 갈변)를 사용하였으며 얇게 숨을 두었다. 떡목의 몸체는 거의 직사각형(26×25cm)이며 네 귀퉁이에 달리는 끈(1×27~28cm)은 1개가 소실되어 3개만 남아 있

『가례』에는 악수의 끈을 아래쪽으로 양쪽 같은 위치에 대칭으로 2개를 달았지만 본 묘의 악수는 대각선 방향으로 달려 있다. 즉 악수 몸체의 크기는 누중(8×1cm)이 있는 직사각형(26×11cm)이고 걸감 위로 대각선 방향의 직접 부착형 끈(1×35~40cm)을 달았다.

### IV. 맺음말

지난 1999년 4월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구간에서 발굴된 奇自獻(1562~1624)의 副室, 長髻 鄭氏(1565~1614) 묘에서 출토된 61종(70여 점)의 유물을 통해 17세기 초 당시의 葬俗과 사용된 습의와 관련하여 복식사적 고찰을 시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묘주 정씨가 사망할 당시 남편 기자헌은 영의정의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세도있는 반가의 보편적인 葬俗과 더불어 특수한 장속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正室이 아닌 副室의 상장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정씨의 장례는 거의 3개월에 걸쳐 행해졌는데 이는 副室임

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품계를 따른, 즉 大夫의 상례로 치루어졌음을 뜻한다. 상장례용 복식 사용과 관련된 장속으로는 세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느질 상태나 옷의 오염 정도에 의해 평소 착용하였던 遺衣와 새로 제작한 新衣가 염습의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남자 복식류가 수습됨에 따라 당시에도 襚禮에 의한 襚禮之衣의 관행이 행해지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본 묘에서만 확인된 독특한 葬俗으로, 옷이나 옷감의 귀티를 절단하는 풍속이 확인되었다.

둘째, 본 묘의 출토복식 고찰을 통한 복식사적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제시될 수 있다. 여성 단령의 착장 사례가 처음 확인됨에 따라 여성의 단령 착용이라는 논의를 할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17세기 초 금직 공작홍배의 조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더 나아가서는 조선 전기에 여성들이 단령(圓領·圓衫)을 착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副室의 경우에 평소에 착용할 수 있었던 옷인지는 밝힐 수 없었으나 상례에서는 남편 품계에 해당되는 단령과 홍배 등을 壽衣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17세기 초 당시 습의로 사용된 복식류가 확인되었다. 습의에는 단령형 상의와 장옷, 단저고리, 적삼 등 상의류 4점, 그리고 솜치마와 겹치마, 개당고형 솜누비 바지와 합당고형 바지로 구성된 하의류 4점, 상복용 대대 1점이 사용되었다. 그 외에 襲具로 사용된 습신과 버선, 떡목과 악수 등이 확인되었다. 물론 수습도 되지 않았고 현장사진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충이나 여모 등이 더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습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만든 신의를 비롯하여 평소 착용하던 옷들이 함께 수의로 사용되었으며 수의에 사용된 옷감도 段이나 명주 등의 견직물을 비롯하여 면포나 모시, 삼베와 같은 다양한 직물들이 함께 사용되었으며 색상도 다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습의로 사용된 품목들의 구체적인 조형성과 구성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의류는 어깨솔기 없이 앞·뒤길을 이어서 재단하였으며 등솔기를 잇되, 시접 방향은 일정하지 않았다. 쇠의 울방향

이나 시접 방향 등도 요즈음과 동일한 것, 다른 것 등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홀으로 제작된 단령형 상의는 옷의 길이나 바느질 상태로 보아 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소매 끝은 남자 단령과는 달리, 겹으로 접어 올렸으며 그 안으로 소색 화문단의 한삼을 달았다. 옆선의 무 역시 남자 단령과는 달리, 다중 안주름형으로 완전히 접어 넣어서 앞·뒤길에 각각 고정시켰다. 홍배의 경우, 앞길에는 깃 바로 아래에 달았으며 뒤판은 등솔기에 8cm 내려온 위치에 면사로 1cm 굵은 땀으로 고정시켰다.

화문단의 겹 장옷은 안팎 모두 들여달린 목판기에 좌우 이중설이어서 지금까지 다른 묘에서 수습된 장옷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문단 겹 단저고리에는 겹길에 실꼬리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新衣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습의로 사용한 겹치마와 동일한 소재로 판명되었다. 겹길은 내어달리고 안깃은 들여달린 목판기이었다. 17세기 초 당시 남자 저고리에 칼깃이 사용되던 것과 달리, 여자 상의류에는 목판기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겨드랑에는 ‘ㄱ자형 무’가 달렸으며 고름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 안에 입은 적삼은 단저고리와 거의 비슷한 크기이지만 안팎 모두 내어달린 목판기가 달려서 단저고리와는 차이를 보였다. 홀옷이므로 어깨에 요자형 어깨바대가 사용되었고 고름의 흔적도 발견되었는데 안섵 쪽 길에는 안으로 고름바대가 바느질되어 있었다.

하의로는 원꼬리형 치마 2점이 사용되었는데 허리끈은 모두 소실된 상태였다. 치마 길이는 85cm 정도, 폭은 400cm 내외로서, 크기나 주름 개수, 치마폭 수 등 조형적 특징은 거의 같았다. 단 곁에 사용된 화문단 솜치마에는 밑단 쪽에 15cm 나비의 접음단 장식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접음단 장식은 치마를 100cm 정도로 길게 제작한 후단을 접어서 85cm의 짧은 길이로 완성시켰다. 대형 사다리꼴 무가 달린 명주 솜누비의 개당고형 바지는 거의 완파되어 대략적인 형태와 치수만이 확인되었다. 세로형 옆트임이 확인되었고 옆트임이 없는 쪽의 바지가랑이가 위로 올라오도록 겹쳐서 말기에 달렸다. 그 안에 착용했던 소색의 합당고형

바지는 현장사진에서만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17세기 초 반가의 葬俗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당시 여자용 습의의 종류와 조형성, 그리고 구성법이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의 바람직한 수의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민속학과 복식사 연구를 위한 학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1) 안동대학교박물관 편 (2000). 포항 내단리 장기 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안동: 안동대학교박물관, pp. 27-90.
- 2) 幸州奇氏大同譜
-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4). 한국민족문화대백과 4.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 516-517.
- 4) 光海君日記 卷之七十四 六年 正月 壬申條
- 5) 國朝五禮儀 卷之八 大夫士庶人喪儀 ○治葬
- 6) 이은주·박성실 (2002). 조선시대 壽衣에 대한 역사적 고찰. 韓國의 壽衣文化. 서울: 신유, p. 73.
- 7) 하멜, 조선왕국기 원본, 김준식 (1995). 우리는 코레아의 광대였다. 서울: 웅진출판, p. 273.
- 8) '襚衣'는 '壽衣'와는 본래 다른 의미의 옷이지만 혼용되어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발음이 같아서 생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필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襚衣'를 '壽衣'와 구분하기 위하여 '수례지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9) 禮記 第二十一 喪大記
- 10) 朱憲, 朱子家禮 卷四 喪禮
- 11) 儀禮注疏 卷十二 士喪禮 十一, '○親者襚...(중략)...疏...(중략)...大功以上...(중략)...庶兄弟襚...疏...庶兄弟是小功總麻之親...'
- 12) 禮記 檀弓 下 '不釋祭服而往遂以襚之(注)...以此襚之者 以其不用襲也 凡襚以斂.'
- 13) 國朝五禮儀 卷之八 凶禮 大夫士庶人喪儀
- 14) 朴承, 鶴川先生遺集 卷之二
- 15) 李緯, 四禮便覽 卷之四 喪 二十九
- 16) 尹行恮, 泣血錄 卷之二 戊午五月初六日
- 17) 안동대학교 박물관 편 (2000). 안동 정상동 일선문서와 이응태 묘 발굴조사 보고서. 안동: 안동대학교 박물관, pp. 238-239.
- 18) 金明淑 (1993). 洪禹協 墓 出土 17世紀 服飾 論考. 청주: 忠北大學校 博物館, p. 36.
- 19) 박성실 (2002). 京畿道 楊洲 海平尹씨 문중 선산 출토 남아 미라 복식유물에 관한 고찰. 남아 미라 및 출토유물 연구논총. 서울: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p. 307.
- 20) 경기도박물관 (2002). 조선의 옷매무새. 민속원, p. 240.
- 21) 姜敷錫 編著, 李民樹 譯 (2000). 대동기문 하. 서울: 명문당, p. 249.
- 22) 송미경 (2002). 조선시대 여성 단령(團領)에 관한 연구. 服飾, 52(8), pp. 151-160.
- 23) 泰州市博物館 (1986). 江蘇泰州市明代徐蕃夫墓墓清理簡報, 文物, pp. 5~12.
- 24) 李東陽 外 (萬曆十五). 大明會典 卷六十四 皇妃冠服 常服 諸色團衫 金繡鸞鳳, 四十八 皇太子妃冠服 常服 諸色團領衫, 六十二 親王妃冠服 常服 諸色團領衫, 卷六十四 三十 命婦冠服 禮服 紅色 圓衫(雉爲等第), 三十四 常服 顏色團領衫, 三十八 士庶妻冠服 淺色團衫
- 25) 國立古宮博物院 編 (1971). 故宮圖像選萃, 明孝慈高皇后半身像(圖39). 臺北: 國立古宮博物院, 해제에 의하면 황색의 '鞠衣'를 착용한 것이라고 한다.
- 26) 南京博物館 (1982). 明清人物肖像畫選. 上海: 人民美術出版社. 圖19. 주인공 朱婦人이 금직홍배가 달린 홍색 단령을 입고 있다.
- 27) 梁誠之, 訥齋集 卷四 四十九
- 28) 燕山君日記 卷五十八 十一年 乙丑六月 丙寅
- 29) 世祖實錄 卷二十 六年庚辰四月 三
- 30) 송미경 (2002). 앞글, p. 156.
- 31) 李恩珠 (1999). 道袍 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기능론적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85-86.
- 32) 송미경 (2002). 앞글, p. 156.
- 33) 燕山君日記 四年 六月 庚辰
- 34) 이은주 (1999). 앞책, pp. 62-63.
- 35) 송미경 (2002). 앞글, p. 156.
- 36) 앞글, pp. 156-158.
- 37) 世祖實錄 卷二十 六年庚辰四月 三
- 38) 喪禮諺解 卷之二 三十八
- 39) 안동대학교 박물관 (1996). 安東地域傳統服飾, p. 4.
- 40) 喪禮諺解 卷之二 四十
- 41) 劉頌玉 (1982). 果川出土 廣州李氏家 服飾一括遺物 考察. 第一回 亞細亞服飾學會議 研究發表要旨(韓國), p. 24.
- 42) 이순원 외 (2000). 이석명(李碩明) 묘 출토복식 조사 보고서. 서울: 서울大學校 博物館, p. 115.